

이재명 “국가 비전 세울것”...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

민주, 국내외 석학 참여 기후변화·AI 등 미래 과제 논의 대권주자 이미지 부각...고교 간담회선 무상교육 의견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가 미래 전략을 짜고 정책을 추진할 '미래거버넌스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국내외 석학이 참여해 미래학,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주요 미래과제를 논의하는 취지로 만든 기구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부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 과학부 표준국장을 지낸 김복호 박사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파탄 난 민생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무너진 국가 비전을 바로 세워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확실하게 준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AI 시대의 높은 생산력을 지속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며 “기후 위기가 국가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대로 건설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 미래 비전을 강조한 이 대표의 메시지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이후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 이미지를 대중에게 더욱 각인시켰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앞서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분이 일몰되는 데 대해 “국

가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보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이 마련됐는데, 이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이 사라진다. 내년도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26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은 될 텐데, (법률안) 거부권이 시행하다 보니 이것도 아마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은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인데, 정부에서는 일몰 도래를 이유로 중앙정부 부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무상교육 정책이 불안정해졌다”고 우려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세번째)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김건희 특검법’ 이탈 차단 ‘무기표 기권’ 검토

‘계시판 논란’ 변수 위기감...재표결, 무기명 방식도 불안 키워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이 약 2주 뒤로 미뤄지면서 국민의힘이 여당 의원의 이탈 가능성을 바짝 경계하는 모습이다.

최근 당원 계시판 논란으로 불거진 내용이 재표결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기결 여론전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최근 당원 계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성격의 글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진운(진윤석열)계와 진한(진한동훈)계가 충돌한 것도 긴장감이 커지는 원인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진운계와 진한계 간 갈등이 특검법 부결을 위한 당내 단일대오에 균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현

재는 부결이라는 당 입장이 확고하지만, 당원 계시판 논란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된다면 재표결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애초 예정된 28일이 아닌 다음 달 10일로 재표결을 연기한 배경에 이러한 여당의 내부 갈등을 고리로 한 이탈표 확대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변화와 쇄신을 요구했던 진한계 의원들의 이탈을 노리고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내부 표 단속에 한층 더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도 여당 의원의 ‘조용한’ 이탈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이탈표 방지를 위해 의

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는 ‘집단 기권’을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 방식과 관련해 정한 건 어떤 것은 없다.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당원 계시판 논란으로 충돌한 진운계와 진한계 역시 특검법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진운계인 강명구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이용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며 “특검을 밀지력에 깔고 탄핵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여당 이탈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진한계 인사는 “우리당이 받을 수 없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며 “진한계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질 생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증인고발, 반년 만에 93건

22대 국회에서 개원 6개월 만에 90건이 넘는 증인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27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6월 5일 개원 이후 지난 19일까지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들의 불출석·국회 모욕 및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안건 93건을 의결했다.

앞서 21대 국회는 4년간 36건을, 20대 국회는 4

년간 89건의 증인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 43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7건, 운영위원회 10건, 행정안전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10건, 보건복지위원회 3건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를 이유로 법사·운영위에서 각각 고발했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도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로 법사·행안·운영위에서 고발됐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조인철, 영광 재보궐 승리 기여 당대표 1급 포상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 27일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1급 포상을 수상했다.

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은 당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는 당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며 이번 포상은 조인철 의원이 지난 10월 16일 실시된 영광군수 재보궐 선거에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승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조 의원은 선거 기간 동안 고향인 영광의 지역 곳곳을 누비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섰다. 특히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직접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펼쳐 지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이러한 활동은 박빙이 예상되었던 재보궐 선거에



서당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 의원은 “이번 포상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뛰어난 선 동료들과 지역 주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와 국민을 위한 정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양곡법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법에 대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농업인생 4법은 정부의 농정실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자 대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

는 ‘농망4법’”이라고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강력히 성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송 장관이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망언을 내놓고 있다. 송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송 장관은 또 지난 국감 때 ‘제가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

다’고 말했는데, 이는 위증에 해당한다. 위증에 대한 고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장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지 맘대로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앞서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심야 상임위를 열어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재해보험법, 농업정책 확대법 등 네 건의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